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한 사람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이민규 · 오경자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한 사람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60명의 여대생(우울집단 30명, 우울하지 않은 집단 30명)으로 하여금 형용사 60개를 구조적, 의미적, 자기참조적 정향과제하에서 처리하도록 한 후 그 우연적 회상을 비교하였다. 우울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은 각각 15명씩 자기지향적 주의조건과 외부지향적 주의조건에 무선헌당되어 주의 조건 조작을 거친 후 세 가지 정향과제를 수행한 결과 양집단이 모두 외부지향적 주의조건에서보다 자기지향적 주의조건하에서 자기참조적 처리과제 후의 우연적 회상이 더 높았다. 또한 자기 참조적 처리과제에서 우울하지 않은 집단은 긍정적 정보의 회상이 부정적 정보의 회상보다 더 우수한데 비하여 우울집단은 부정적 정보의 회상이 긍정적 정보의 회상보다 우수하였으며, 이러한 우울집단의 부정적 인지편파는 자기지향적 조건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자기도식의 가용성을 높임으로서 우울한 사람의 부정적 자기도식으로 인한 부정적 인지편파를 심화시키는 구실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울증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인지 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울한 사람의 인지 기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울한 사람이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울증에 대한 모든 인지적 가설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Beck(1967)은 자기 자신, 자신의 환경 및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패턴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부적응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증의 발달과 지속에 중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전현민, 1988; Greenberg & Pyszczynski, 1984, 1986; Ingram & Smith, 1984; Pyszczynski & Greenberg, 1985, 1986, 1987; Smith & Greenberg, 1981; Smith, Ingram, & Roth, 1985).

Smith와 Greenberg(1981)는 Fenigstein, Scheier, 및

Buss (1975)가 제시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자기지향적 주의 경향과 MMPI 우울증 척도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얻었음을 보고하였다. Ingram과 Smith(1984)의 연구에서도 Beck Depression Inventory로 측정된 우울증상의 정도와 자기지향적 주의 경향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우울한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 지향적 문장완성(self-focus sentence completion; Exner, 1973)과제에서 더 높은 자기지향된 반응을 보였다(Ingram & Smith, 1984).

Pyszczynski와 Greenberg(1985)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즉 언어지능 검사를 사용하여 성공 또는 실패를 조작한 후 자기 지향적 자극(거울)이 있는 장소와 없는 장소에서 과제를 수행케 했을 때,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보다 성공후에 거울 앞에

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던 반면, 우울한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 후에 거울 앞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 후에 자신들이 수행한 검사가 덜 타당하고 자신의 실패가 운때문이라고 보는 귀인의 자기양양패턴(self-serving pattern)을 보였고, 우울한 사람은 실패 후에 자존심(self-esteem)의 저하를 보였다. Greenberg와 Pyszczynski(1984, 1986)의 연구에서도 우울한 사람들은 실패 경험 후 더 자발적으로 자기지향적 주의를 하고 성공 경험 후에는 자기지향적 주의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울한 사람은 높은 자기지향적 주의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자기지향적 주의 경향이 실패 경험 후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울 경향과 자기지향적 주의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yszczynski, Hot, 및 Greenberg(1987)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미래의 사건에 대한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외적으로 지향된 주의 조건에서는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반하여 자기지향된 주의 조건에서는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더 잘 일어날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과는 자기지향적 주의 조건하에서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 사고 양식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은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증의 부정적 인지 편파의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한 사람의 인지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Derry와 Kuiper(198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처리깊이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 인지 편파(즉 부정적 정보를 긍정적 정보보다 더욱 잘 회상하는 경향)가 자기지향적 주의 조건에서 더욱 더 심화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Derry와 Kuiper(1981)의 연구에서는 자기참조적 과제(self-referent task: 이 단어가 당신들 묘사합니까?), 의미적 과제(semantic task: 이 단어가 'XXX'와 뜻이 비슷합니까?), 구조적 과제(structural task: 이 단어에 'XXX'자가 'XXX'개 들어 있습니까?)의 세수준의 정향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

하여 처리된 형용사들의 우연적 회상을 분석하여 우울증 특유의 인지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처리 깊이가 과제를 사용하여 우울한 사람의 자아개념(self concept)의 구조와 내용을 알아본 일련의 연구들(최미례, 1987; Derry & Kuiper, 1981; Kuiper & Derry, 1981, 1982; Kuiper & McDonald, 1982, 1983; Kuiper, Derry, & McDonald, 1982; Kuiper, McDonald, & Derry, 1983)은 우울한 사람의 자기도식 내용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즉 자기참조적 정향과제, 의미적 정향과제, 구조적 정향과제에서 긍정적 형용사와 부정적 형용사를 평정케한 후 우연 회상을 시켰을 때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부정적 형용사보다 긍정적 형용사를 더 많이 회상하는데 비하여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형용사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이러한 부정적 인지편파는 자기참조적 처리과제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우울 경향을 보이지 않는 정상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로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자기도식을 활용하는데 반하여,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 내용으로 구성된 자기도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울증의 특징적인 인지편파가 부정적 자기도식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울한 사람에게 자기지향적 주의를 시키면 우울한 사람의 부정적 인지편파가 더욱 증가되는 반면,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지향적 주의를 함으로써 더욱 더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자기지향적 주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우울한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 정보의 회상을 증가시키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긍정적 정보의 회상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인지편파의 심화는 자기도식이 활용되는 조건에 국한되어 나타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지향적 주의 조건과 외부지향적 주의 조건하에서 우울한 사람과 우울하지 않은 사람에게 각각 자기참조적, 의미적, 구조적 정향과제를 수행케 한 후 그 회상을 비교함으로써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한 사람의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의 인지적 편파가 의미적, 구조적 정향과제 후의 회상

에서만 나타나고, 이것이 자기지향적 주의 조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면 이는 우울증의 인지편파가 부정적 자기도식으로 인한 것이라는 가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을 다음과 같은 가설 형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첫째, 자기지향적 주의 조건하에서는 외부지향적 주의 조건에 비하여 자기참조적으로 처리된 단어의 회상이 증가할 것이고 반면에 의미적, 구조적 정향과제에서 처리된 단어의 회상은 조건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울집단은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자기참조적 처리된 단어에서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할 것이다. 반면 의미적, 구조적 정향과제하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외부지향적 조건보다 자기지향적 조건하에서 우울 집단의 자기참조적 정향과제 후의 부정적 인지 편파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예비검사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실시해본 결과 BDI점수가 11점 이상인 남자피험자가 여자피험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그래서 각 처치조건당 남, 여 피험자 비율을 동등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본 실험에서는 서울 소재 E 여자 대학교 210명과 S 대학교 여학생 146명에게 BDI를 실시하여 그중 BDI점수가 11점 이상인 사람을 우울집단(30명)으로, 9점이하인 사람을 우울하지 않은 집단(30명)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각 자기지향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조건과 외부지향적 주의(external focused attention) 조건에 15명씩 무선할당하였다. 각 집단별 BDI점수를 변량 분석한 결과 우울집단($M=17.47$)이 우울하지 않은 집단($M=5.00$)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으나, $F(1,56)=94.82, p<.01$, 자기지향적 주의 집단과 외부지향적 주의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극 재료

긍정적인 내용의 형용사와 부정적인 내용의 형용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321개를 대학생 120명에게 제시하고 각 단어의 호오도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케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우연적 회상 패러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상가에 따른 회상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각 단어가 심적인 상을 야기시키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서 평정하게 했다. 이와 같이 평정된 단어 중 내용 평정점수의 양극단에서 심상가가 비슷한 단어를 각각 30개씩 뽑아 자기참조적, 의미적, 구조적 처리수준에 무선적으로 배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긍정적인 단어의 호오도의 평균치는 6.15이고 부정적 단어의 호오도의 평균치는 2.08이었다. 긍정적인 단어($M=4.90$)와 부정적인 단어($M=4.73$)의 심상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58)=1.57, n.s.$.

절차

자기지향적 주의/외부지향적 주의의 조작

자기지향적 주의는 55×99 크기의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생각, 태도, 특징, 경험 등에 관하여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문장완성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조작되었다. 즉 자기지향적 주의 조건에 배당된 피험자가 실험실에 들어오면 실험자는 벽에 거울이 있음을 알리고 피험자가 이를 인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을 꾸미려고 거울을 걸어두었음을 이야기하였다. 문장완성검사에 포함된 항목은 “나는 때때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나의 모습(용모)는—”등 자신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문장들이었다. 외부지향적 주의 조건에서는 피험자가 거울앞에 앉도록 하는 조작을 없애고 문장완성검사 역시 “자연환경은—”, “비행기는—”, “자동차는 인간에게—”등 자기와는 무관한 외부 환경에 주의를 두도록 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있었다.

모든 피험자는 문장완성검사를 끝낸후 각각 “자신에 대하여 생각한 정도”를 100mm길이의 선에 표시하도록 하여 본 실험에 사용된 자기지향적 주의/외부지향적 주의 조작 효과를 검증하였다.

정향과제 수행

자기지향적/외부지향적 주의 조작에 이어 각 피험자는 IBM PC/XT를 이용하여 제시된 정향과제를 수행하였다. 자기 참조적 처리 과제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당신 자신’을 묘사합니까(예/아니오)”라는 질문이 컴퓨터 모니터 중앙에 4초동안 제시된 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앞서 제시된 질문에 관한 단어가 제시되었다. 의미적 처리과제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XXX’ 단어와 비슷한 의미입니까?(예/아니오)”라는 질문이, 구조적 처리과제에서는 “다음에 나오는 단어 속에 ‘X’자가 ‘X’개 있습니까?(예/아니오)”라는 질문과 이에 관한 단어가 자기참조적 처리과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자기참조적 처리과제, 의미적 처리과제 및 구조적 처리과제에는 이미 심상가를 고려하여 선정된 긍정적 단어 30개, 부정적 단어 30개중에서 각 과제당 긍정적 단어 10개, 부정적 단어 10개씩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따라서 각 피험자는 자기참조적 처리과제 20문항, 의미적 처리과제 20문항, 그리고 구조적 처리과제 20문항, 총 60문항의 정향과제를 수행하였다.

60항목의 정향과제의 제시 순서는 무선적이었다. 회상에서 초두 효과(primacy effect)와 최신성 효과(recency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서 맨 앞과 맨 뒤에 각각 세 단어씩 모든 피험자에게 동일하게 고정적으로 제시되어 평정되었다. 따라서 피험자는 모두 66개의 단어를 각 질문에 따라서 평정했다. 그러나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앞 뒤 각각 세 단어는 제외된다. 한편, 의미적 처리과제와 구조적 처리과제에서는 ‘예/아니오’의 반응을 동일하게 만들어 ‘예/아니오’에 따른 회상 효과를 제거했다. 또한 맨 처음에 연습으로 3문제가 제시되었다.

우연적 회상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은 처리과제를 다 수행하고 난 후, 각 피험자로 하여금 평정한 단어중에서 기억할 수 있는 단어를 순서에 상관없이 모두 적도록 하였다. 회상 시간은 3분으로 제한 되었다.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 방안은 2(집단: 우울/비우울)×2(주의: 자기 지향적 주의/외부 지향적 주의)×2(정보: 긍정적 정보/부정적 정보)×3(처리 수준: 자기 참조적/의미적/구조적)으로 앞의 두 변인은 피험자간 요인이고 마지막 두 변인은 피험자내 요인이었다.

종속변인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 측정에서 자기참조적 처리과제 하에서 처리된 정보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우울증 연구들(Kuiper, Derry, & MacDonald, 1982; Lloyd & Lishman, 1975)에서 사용된 바 있는 개별적 접근(idiographic approach)을 사용하여 정보 내용의 성질을 ‘예/아니오’ 반응 형태에 따라 각 피험자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였다. 즉 긍정적 정보는 피험자가 ‘예’라고 반응한 부정적 단어와 ‘아니오’라고 반응한 긍정적 단어는 모두 부정적 정보로 정의되었다. 피험자가 부정적 단어에 ‘아니오’라고 반응한 경우는 그 단어의 반대되는 긍정적 단어에 ‘예’라고 반응한 것과 대등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긍정적 정보로 간주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긍정적 단어(예: 유능하다)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그 단어의 반대되는 부정적단어(즉 무능하다)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통한다는 가정하에 부정적 정보로 간주되었다.

결 과

자기지향적 주의 조작 효과

자기 지향적 주의 조작 효과에 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 관한 어두로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한 집단이 거울 없이 외적 환경에 관한 어두로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한 집단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다고 보고했다, $F(1,56)=73.38$, $p<.001$. 한편 집단의 주 효과와 집단×지향된 주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1,56)=1.66$, n.s., $F(1,56)=.$

표 1. 자기지향적 주의 효과의 평균(표준편차)

집단	지향된 주의	
	외부지향	자기지향
비우울 집단	47.00(25.18)	83.00(13.77)
우울집단	38.87(14.64)	79.60(12.88)

279, n. s.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실험에서 자기지향적 주의의 조작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자기지향적 주의가 정보처리에 미친 효과

집단, 지향된 주의, 처리수준 및 정보내용에 따른 평균 회상수가 표 2 및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연적 회상수를 종속변인으로하여 집단×지향된 주의* 정보내용의 4원 변량분석을 시행한 결과 처리수

표 2. 각 조건별 평균 회상 단어수(표준편차)

집단	지향된주의	정보내용	처리 수준		
			자기참조적	의미적	구조적
비우울 집단	외부지향	긍정적	1.87(1.36)	0.73(0.70)	0.60(0.74)
		부정적	1.67(1.18)	0.87(0.83)	0.20(0.56)
	자기지향	긍정적	3.40(1.55)	1.33(1.05)	0.40(0.63)
		부정적	1.67(1.11)	0.67(0.90)	0.40(0.51)
우울 집단	외부지향	긍정적	1.47(1.13)	0.80(0.94)	0.97(0.20)
		부정적	1.93(1.49)	0.93(0.96)	0.13(0.35)
	자기지향	긍정적	2.13(2.03)	1.33(1.23)	0.20(0.41)
		부정적	3.40(1.88)	1.00(1.46)	0.29(0.46)

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F(2,112)=109.91$, $p<.001$, 집단의 주효과, $F(1.56)=0.01$, n. s.,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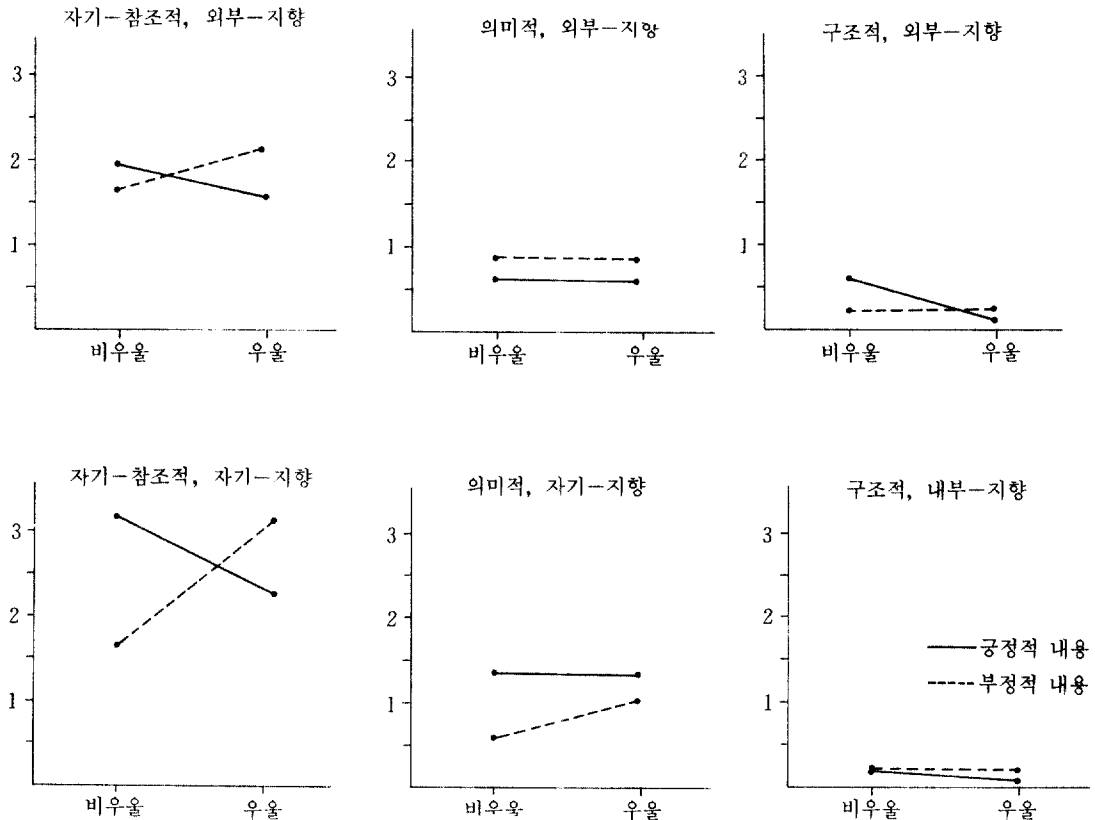


그림 1. 각 조건에 따른 회상단어 수

단 $\times$ 처리 수준의 상호작용, $F(2, 112)=1.02$, n.s.,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기참조적 처리 수준에서 의미적 처리나 구조적 처리보다 더 높은 회상율을 보였으나 이러한 양상은 우울집단,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실험에 사용된 과제에서 우울집단과 우울하지 않은 집단의 피험자가 전반적인 회상능력이나 각 처리수준에 대한 반응에서 유사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정보내용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F(1, 56)=0.52$, n.s.,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긍정적 정보와 부정적 정보의 회상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집단 $\times$ 정보내용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F(1, 56)=7.46$, $p<.01$, 집단 $\times$ 처리 수준 $\times$ 정보내용의 3원 상호작용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 112)=5.42$, $p<.01$. 이런 상호작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후 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해 본 결과 자기참조적 처리과제하에서 긍정적 정보의 경우 우울하지 않은 집단이 우울집단보다 더 높은 회상율을 보인데 반하여, $F(1, 112)=8.61$, $p<.01$, 부정적 정보는 우울하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집단에서 더 많이 회상되었다, $F(1, 112)=12.5$, $p<.01$. 또한 우울하지 않은 집단은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고, $F(1, 112)=11.52$, $p<.01$, 반면 우울집단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하였다, $F(1, 112)=9.46$, $p<.01$. 그러나 의미적 처리과제와 구조적 처리과제에서는 자기참조적 처리 과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집단 $\times$ 정보내용의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우울한 사람이 부정적 인지왜곡 경향성을 가지며, 이러한 인지왜곡이 특히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재입증해 주는 것이다.

전반적인 회상 수준에서는 자기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M=1.35$)이 외부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M=.94$)보다 회상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F(1, 56)=15.52$, $p<.001$, 지향된 주의와 처리수준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F(2, 112)=5.87$, $p<.01$, 자기지향적 주의의 효과가 처리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후 분석으로 Scheffe' 검증한 결과 자기참

조적 처리과제에서만 자기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M=2.65$)과 외부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M=1.74$)간의 차이가 유의했고, $F(1, 112)=6.09$, $p<.01$, 의미적 처리과제와 구조적 처리과제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자기와 관련된 정보처리에만 한정되어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준다.

집단 $\times$ 지향된 주의 $\times$ 처리수준 $\times$ 정보내용의 4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2, 112)=3.11$, $p<.05$. 상호작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 위해 Scheffe'검증을 해 본 결과, 자기참조적 처리과제하에서 우울집단중 자기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M=3.40$)이 외부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M=1.93$)보다 부정적 정보의 회상을 유의하게 더 많이 했으나, $F(1, 112)=13.5$, $p<.01$, 긍정적 정보의 회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1, 112)=2.72$, n.s.. 반면에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자기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이 외부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보다 자기참조적 처리과제 후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했으나, $F(1, 112)=14.63$, $p<.01$, 부정적 정보의 회상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1, 112)=0$, n.s.. 의미적 처리과제와 구조적 처리과제에서는 긍정적 정보의 회상과 부정적 정보의 회상이 지향된 주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적 주의를 통하여 자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면 우울집단의 부정적 인지편파가 심화되리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기참조적으로 처리된 정보가 의미적 혹은 구조적으로 처리된 정보보다 더 많이 회상되었다. 이 효과는 Derry와 Kuiper(1981), Rogers(1981) 그리고 Rogers, Kuiper, 및 Kirker(197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지향적 주의 집단이 외부지향적 주의 집단에 비하여 자기참조적 처리과제에서 높은 회상을 보였다. 자기지향적 주의는 의미적 및 구조적

처리과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자기도식의 가용성(availability)을 증가시켜 사회 인지과제를 수행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Carver & Scheier, 1981; Hull & Levy, 1979)와 일치한다.

세째, 자기참조적 처리과제에 있어서 우울하지 않은 집단은 부정적 정보보다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했고, 우울집단은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했다. 이에 반하여 의미적 과제 및 구조적 과제에서는 이러한 집단×정보내용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Derry와 Kuiper(198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우울한 사람은 부정적 내용에 대해서 특징적인 자기도식을 사용하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도식으로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네째, 집단×처리수준×지향된 주의×정보내용의 4원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사후 비교를 해 본 결과 우울집단은 자기참조적 과제하에 있어서만 자기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이 외부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보다 부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한 반면에 우울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자기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이 외부지향적 주의를 한 집단보다 긍정적 정보를 더 많이 회상했다. 이같은 결과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자기도식을 활성화시켜 우울집단의 인지 왜곡을 확대시키는 기능을 했음을 시사해 준다. 다시 말해서 자기지향적 주의를 하게 되면 자신에 관련된 정보의 처리에서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자기도식이 부각되어, 부정적 자기도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우울 집단의 경우 회상에서의 부정적 편파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해석될 수 있다.

자기지향적 주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울집단의 부정적 인지편파를 확대시키게 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몇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그중 한가지는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집단의 부정적 자기개념을 부각시킴으로서, 이들로 하여금 더욱 부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정서상태와 일치되는 부적 단어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주의하게 하거나 부호화(encoding) 및 상기(retrieval)를 용이

하게 하여 이의 회상을 높였을 가능성이라고 하겠다. 정서상태 의존적 기억, 즉 정서상태와 일치하는 내용의 정보가 더욱 잘 기억된다는 연구들로 미루어 볼 때, 자기지향적 주의 조작이 주로 정서 상태에 영향을 줌으로서 선택적 주의, 부호화, 상기 등의 과정을 통하여 회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구조적, 의미적 정향과제 하에서는 우울 집단의 부정적 인지 편파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기참조적 정향과제 하에서만 유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서상태의존적 기억의 기제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자기도식이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조의 기능을 한다는 가정하에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 집단의 부정적 자기 도식의 가용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부정적 정보의 회상을 촉진시킨다는 가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자기지향적 주의가 우울한 사람의 부정적 인지편파를 더욱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며 자신과 관련된 경험을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우울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몰두하는 것이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Jacobson과 Anderson(198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우울증환자로 하여금 자기지향적 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울증의 치료전략으로서 고려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종전의 우울증에 대한 자기적면 치료가 단기적으로 볼 때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근래 자기 지향적 주의는 우울증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 시험불안 등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이옥정, 1988; Carver, Peterson, Follansbee, & Scheier 1983; Hope & Heimberg, 1985; Ingram, & Smith, 1984; Smith, Ingram & Roth, 1984). 또한 입원 정신과 환자들로 하여금 자기지향적 주의를 하도록 유도한 결과 부적인 정서상태가 더욱 더 악화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Gibbons, Smith, Ingram, Pearce, Brehm, &

Schroeder, 1985). 만성적으로 높은 자기지향적 주의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패경험후 한층 더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경험하고 자신에 대하여 더욱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Ingram, 1986; Pyszczynski & Greenberg, 1985; Pyszczynski, Holt, & Greenberg, 1987). 이러한 결과들은 높은 자기지향적 주의가 부정적 정서 상태나 부정적 사고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지향적 주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증상의 심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참조적 과제하에서 처리된 단어 내용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개별적 접근이 사용되었다. 이는 기존의 우울증의 인지과정 연구(Kuiper, Derry, & McDonald, 1982; Lloyd & Lishman, 1975)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으로 자기참조적 과제의 특수한 성질상 피험자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정의된 정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정의 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채택되었다. 참고로 객관적 정의에 의하여 정보내용을 분류한 경우 자기참조적 과제하에서도 우울 집단의 정보내용에 따른 회상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객관적 정의에 의하여 분류하였을 때에는 우울집단의 회상에서 부정적 편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극 단어의 객관적 의미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특징은 이들의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보다는 자극 단어가 피험자의 자기도식의 어떠한 측면을 가용화시키는가를 반영한다고 보는 개별적 접근에 의한 분류가 더 의미있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자기참조적 과제에서의 정보 내용 분류의 개관적, 그리고 개별적 접근 방법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두 접근 방법에 대한 좀더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우울집단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 층에서 경증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여자피험자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한정된 피험자들을 사용했으므로 우선은 남자피험자들에게도 위와 똑같은 결과

가 나타날지 또한 임상적으로 진단될 수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이옥정(1988). 대인불안에서 주의방향이 Stroop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전현민(1988). 자기지향적주의가 우울한 사람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최미례(1987). 대학생 우울집단의 정서 일치성효과와 일시적으로 유도된 정서상태가 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Carver, C. S., Peterson, L. M., Follanbee, D. J., & Scheier, M. F. (1983). Effects of self-directed attention on performance and persistence among persons high and low in test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33-354.
- Carver, D. M., & Scheier, M.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Craik, F. I. M., & Tulving, E. (1975). Depth of processing and the retention of words in episodic memory.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268-294.
- Derry, P. A., & Kuiper, N. A. (1981). Schematic processing and self-reference in 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286-297.
- Fenigstein, A., Scheier, M., & Buss, A. (1975).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ibbons, F. X., Smith, T. W., Ingram, R. E., Pearce, K., Brehm, S. S., & Schroeder, D. J. (1985). Self-awareness and self-confrontation: Effects of Self-Focus attention on members of a clinical

- po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662-675.
- Greenberg, J. & Pyszczynski, T. (1986). Persistent high self-focus after failure and low self-focus after success: the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039-1044.
- Hull, J. G. & Levey, A. S. (1979). The organizational functions of the self: An alternative to the Duval and Wicklund model of self-awar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6-768.
- Ingram, R. E., & Smith, T. W. (1984). Depression and internal versus external focus of atten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8, 139-151.
- Jacobson, N. S., & Anderson, E. A. (1982). Interpersonal skill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An analysis of the timing of self-disclosures. *Behavior Therapy*, 13, 271-282.
- Kuiper, N. A., & Derry, P. A. (1982). Depression and nondepressed content self-reference in mild depressives. *Journal of Personality*, 50, 67-80.
- Kuiper, N. A., & Derry, P. A., MacDonald, M. R. (1982). Self-reference and person perception in depression: A social cognition perspective. In G. Weary & H. L. Mirels, (Eds.), *Integrations of Clinical and Social Psychology*.
- Kuiper, N. A., & MacDonald, M. R. (1982). Self and other perception in mild depressives. *Social Cognition*, 1, 223-239.
- Kuiper, N. A., & MacDonald, M. R. (1983). Schematic processing in depression: the self-based consensus bia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469-484.
- Kuiper, N. A., & MacDonald, M. R., & Derry, P. A. (1983). Parameters of a depressive self-schema. In J. Suls & A. G. Greenwald, (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2). Hillsdale, N. J.: Erlbaum.
- Lloyd, C. G., & Lishman, W. A. (1975) Effect of depression on the speed of recall of pleasant and unpleasant experience. *Psychological Medicine*, 5, 173-180.
- Rogers, T. B. (1981). A model of the self as an aspect of the hum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In N. Cantor & J. F. Kihlstrom (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Social Interaction*. Hillsdale, N. J.: Erlbaum.
- Rogers, T. B., Kuiper, W. S. (1977). Self-reference and encoding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77-688.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5). Depression and preference for self-focusing stimuli after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066-1075.
-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6). Evidence for a depressive self-focusing sty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95-106.
- Pyszczynski, T., Holt, K., & Greenberg, J. (1987). Depression, self-focused attention, and expectancies for positive and negative future life event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94-1001.
- Smith, T. W., & Greenberg, J. (1981). Depression and self-focused attention. *Motivation and Emotion*, 5, 323-331.
- Smith, T. W., Ingram, R. E., & Roth, D. (1985).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Self-evaluation, affect, and life stress. *Motivation and Emotion*, 9, 381-398.

The Effects of Self-Focused Attention on the Information Processing of Depressives

Min-Kyu Rhee and Kyung-Ja Oh

Sung Kyun Kwan University

Following manipulation of attention, each subject was presented with 60 adjectives, 20 under each of the three types of orienting task—structural, semantic, and self-referent.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elf-focused attention group compared to the external focused attention group, recalled more positive than negative information processed under the self-referent task, and the depressed group recalled more negative than positive information. Such negative cognitive bias of the depressed group was more evident under the self-focused condition than under the external focused condition.